목어

한국의 영세중립

남북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하여 상생과 공존의 경제협력이 기대되는데 우선 상호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로 무기를 맞대면서 믿음이 있을 수는 없기에 군비축소가 요청되고 실질적인 평화의 꿈이 부풀 것이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가 확장되고 그 일대가 세계적인 평화의 공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20세기 동안 우리는 혹독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여러 차례의 호기를 맞이한 바 있었다. 8·15해방, 4·19혁명, 80년 서울의 봄… 등.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들 봄은 모두 차가운 꽃샘추위에 시들고 말았다. 이 역사에서 우리는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봄을 기다려서는 안되며, 적극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것을 위해 한반도 중립안을 제안한다.

조선왕조 말기 이래 러·일전쟁을 앞두고 고종황제에 의한 조선중립안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영세 중립안이 간헐적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국제감각 부족 등의 이유로 한낱 발상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타협점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7천만의 인구와 경제력, 지적 수준도 높아졌다. 충분히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 이어서 통일된 중립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권(Asia Union)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민족이 하나임을 자각해야 한다. 요즘 일부 재일교포들 사이에 '내 고향은 한국이다'를 말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은 첫 대면에서 으레 고향을 묻곤 하지만 좁은 한국, 그것도 남한 내에서 출신 도를 따지고, 마을까지 가리는 일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운동이 전 세계의 한민족 사이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한반도에서 범인류적 차원의 평화운동이 발산되어지기를 기원한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승납 10년 이상 3천명 대상 9개항 설문

사면 '可' '否' 판단자료로

조계종 종헌개정 설문조사 어떻게 하나

6월 중순경 공청회 열듯

사면과 관련, 종헌 개정에 대한 조계종 종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정휴)는 4월 28일 설문 문항을 확정하고 설문지 배포에 들어갔다. 설문 문항은 종헌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법납과 소임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을 빼면 9개 문항(2개 문항은 답변에 대해 이유를 묻는 보충 질문이다)으로 구성됐다.

△사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찬반 이유 △바람직한 사면 절차 △사면시 멸빈자의 포함 여부와 이에 대한 찬반 이유 △멸빈자를 사면·복권할 경우 종헌 개정 찬반 △징계 시기에 따른 사면 대상자의 범위 △멸빈자의 사면시 공직 취임 제한 범위 등을 묻고 있다.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4점 척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과 종헌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가부간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조사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4점 척도는 5점 척도와 달리 판단을 유보하는 중간 답변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사면 필요성의 찬반과 멸빈자의 사면 대상 포함 찬반을 묻는 보충질문의 답변은 그 이유를 약술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승납 10년 이상의 스님들이다. 원로의원, 종회의원, 본사 주지 및 7직, 말사·포교당 주지 및 소임자, 각급 교육기관 임원, 초·재심 호계위원, 역대 총무원장·종회의장, 소청심사위 중앙선관위 등 각종 위원회 위원, 비구니회 임원과 중앙종무기관 부·국장스님, 선원·율원 소임자, 각종 법인·단체 임원, 사찰 내 한주(거주승)을 망라한다. 약 3천명 정도에 설문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설문지는 개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사찰과 단체에 보낸다.

이달 초까지 설문지를 발송해 20일 이전에 회수할 예정이다. 하안거 결제일(18일)을 넘기면 설문지 회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월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6월 15일경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과 종헌 개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는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헌 개정·사면 실시 여론이 모아지면 6월말이나 7월초 종회가 열릴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종헌 개정 및 사면 실시 의견이 많다고 해서 바로 종헌을 개정하고 사면을 실시할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설문회수률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의 영향력의 좌우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우편조사의 경우 설문회수률은 20~30%이다.

조계종에서 종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으나, 특정 사안을 두고 종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헌특위와 중앙종회 사무처는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설문 문항 작성 과정에서 조사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후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교계 갈등 조짐

정대스님 "왜 불러야 하나" 대책위 "방한운동 계속"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는 즉각 총무원을 방문, 유감의 뜻을 전함으로써 자칫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놓고 범불교대책위-정부, 중국불교협회-종단협의회와의 갈등에 이어 범불교대책위-조계종총무원과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대스님은 4월 21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 초청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종단에 대한 초청의사 타진이나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단체에서 불쑥 들고나오니 모양이 어렵게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달라이 라마를 왜 꼭 불러야 하는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그를 생불(生佛)로 떠받드니까 부화뇌동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익 차원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고 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4월 19일 이재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이에 앞서 19일 총무원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정 정책위원장(당시)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정대스님은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 움직임)을 놔두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학생운동의 이슈가 없다. 종단적으로 (방한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지만, 신행단체에서는 운동이 활발하다. 우리에게도 (신행단체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백해무익이다. 한국불교에 무슨 공로가 있는가. 한국의 인권탄압 때 한마디라도 했나." 이에 대해 이 당시 정책위 의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정대스님의 달라이 라마 방한 반대발언에 대해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는 24일 총무부장 원택스님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으며, 원택스님은 "정대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범불교대책위 윤남진 기획실장은 25일 "정대스님의 발언에 개의치 않고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존재의미는 지금 여기에 놓는 것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⑭만해문학과 선

노귀남
국문학·경희대 강사

"선이면서 곧 선이 아니요, 선이 아니면서 곧 선이 되는 것이 이른바 선이다. 달빛이냐, 갈꽃이냐, 흰 모래위의 갈매기냐." 이처럼 일상 언어가 문학적 가공을 거치고, 또 한 겹 안개를 씌우듯 선의 의미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만해는 상찰선사(常察禪師)의 선화(禪話)를 주해한 〈십현담주해〉를 비롯해, 선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 시집에 '선사의 설법'이 들어있기도 하니, 선의 광맥을 캐내 볼 만하겠다.

시집 〈님의 침묵〉을 한 주제에 의한 연작시로 보거나, 서사시와 같은 극적 요소를 읽어내면, 훨씬 뜻 깊고 재미나다. 만해 시의 진수는 기승전결(起承轉結) 구성에서 '전'에 해당하는 반전이 '나'의 발견과 자아실현에 닿아있다는 데서 찾아진다. 시집 전체는 꿈의 세계이면서, 그 속에 다시 현실과 꿈의 경계를 만들어 두었다. 꿈으로 들어가는 문 '군말'과, 나오는 문 '독자에게'는 시인의 육성을 담아 장치해 놓고, 그 안에 88편은 시적 인물의 목소리로 현실로 향한 날개짓처럼 화두를 던진다. 어린 양인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자유를 얻으련만, 이렇게 진짜로 날기를 꿈꾸기라도 하듯이.

'군말'은 "님만 님이 아니라"고 하여, 굳어진 일상의 틀을 깨고, 존재(세계)를 다르게 보게 한다. 물론 '님'만이 아니라, 나, 사랑, 리별, 죽음 등 모든 대상에서 일상 의미를 뒤집는다. 또,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라고 하여, 실체를 뒤집는 사고의 대전환이 있다. 이것은 형식에서 기승전결법의 '전'에 의한 '반전 구성'과 일치한다. 그리고 '어린 양'은 시적 인물 '나', 즉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 주인공이 흔들리는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과정이 시집 전체 내용과 결부된다.

표제시 '님의 침묵' 구성은 시집 전체와 닮은꼴이다. ①갑자기 님과 이별해 위기에 처한 흔들림 속에서 문득 홀로 던져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나, ②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나, ③마침내 국면을 전환시켜 스스로 창조한 세계를 확보한 나, ④새 세계를 추수하여 노래하는 나, 이렇게 '기승전결'의 네 단계를 거치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만해는 이런 시적 상황의 설정을 통해, 님과의 이별로 상징되어 있는 현실의 고통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주체인 '나'란 존재의 생명력을 화두로 하여, 주체(나)와 대상 세계(님)의 존재 의미를 캐묻다.

반전을 반복하는 연작으로 짜놓고 있음에 유의하면, 존재(나, 님) 의미가 변하고 있고, 거듭 새롭게 태어남을 알 것이다. 즉, 존재는 현재성과 역동성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나'의 행위에 나타나는데, 반전을 거듭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자아를 완성하듯한 권의 시집으로 완성된다. 88편의 시는 한 편마다 완성품이지만, 이들이 단계별로 전환의 과정을 거쳐 한 편의 대작 〈님의 침묵〉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부분과 전체가 형식과 내용에서 절묘하게 대등한 값으로 일치하여 있다.

만해는 '군말'에서 어린 양과 시속의 주인공 '나'를 겹치게 하고, 또다시 그 '나'를 '독자에게'에서 독자와 겹쳐보게 한다. 주체(어린 양)가 처음에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침내 역사와 미래를 통찰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 88편의 시에 의탁해 '나'를 말한다. 이때, 기승전결법은 '님은 너의 그림자', '이별은 끝이 아니라 침묵을 쳅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동시에 생각과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실천적 인생여정을 '나'를 통해 보여주고, 독자는 읽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스스로 역사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만해시의 선적 의미는 그 체험이 실천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존재의 의미를 지금여기에 놓는 것, 당장에 살아 움직임으로서 성성적적(惺惺寂寂)함이 바로 선이다. 만해의 지적대로 처소를 고요히 함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함이 선이요, 활발발하되 흔들림이 없는 힘이 선이다. 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 마음으로 살아있음이 선과 통한다. 만해는 시적 장치로서, ①꿈과 현실을 배치하여 '깸, 깨달음'을 환기하고, ②반전 구성의 반복으로 실상(實相)을 추구하고, ③'군말'과 '독자에게'를 통해 의미 생산을 현재화했다. 고답한 선을 버리고, 어린 양 작은 새도 주인공이 되는 선을 쓴다. 이 점이 그의 문학이 시민과 민중의 문학으로 평가받는 기틀이 되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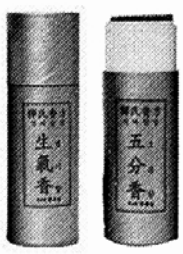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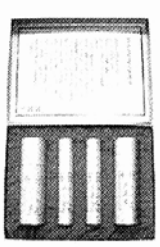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